

도내 아이들 정서불안... “관심 가져야”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매년 1000명대 도교육청 “위기학생 위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진행”

매년 제주에서 1000명 이상의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이 발생하면서, 교육당국이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3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생 2만6643명(초 1·4, 중 1, 고 1)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1326명(5%)이 관심군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역시 같은 학년 2만5660명을 대상으로 검

사를 실시해 1496명이 관심군으로 분류된 바 있다.

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의 성격 특성과 정서행동발달의 정도를 평가하고, 인지·정서·사회성 발달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조기에 평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서위기학생'으로 나타난 314명에 대해서는 긴급 모니터링과 전문의 자문, 순회상담 등의 지원

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6월 1일부터 생명존중 '경계' 단계를 발령한 것을 비롯해 ▷마음꾸러미 배부 ▷학교 정서지원 공간 시범운영 ▷상시 모니터링제 운영 ▷담임교사를 위한 정서위기학생 지원 가이드북 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 정서지원공간 운영은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 도내 6개 학교(초 2·중 3·고 1)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또 지난 29

일부터 31일까지는 심리·정서 돌봄이 필요한 정서위기학생에게 ▷스트레스스랩 ▷감정다이어리 ▷반려식물 키우기 등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꾸러미'가 보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후 학교 적응 중인 정서위기학생들의 마음방역을 위해 앞으로 양질의 정서적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진행한 '2019 제주도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729명 가운데 '자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7.4%인 275명이었다. 송은범기자



“해직공무원 원직복직법 제정 협력하라”

전국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조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은 30일 “원희룡 도지사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

이들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이 무려 5800일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1인 시위, 수 십차례의 단식투쟁과 집회, 그리고 노숙농성 등 하루도 빠짐없이 총력투쟁을 진행해 왔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원직복직의 꿈을 안고 함께 버터

오던 136명의 동지 중 벌써 여섯명의 해직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37명은 정년엔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공식 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특별법 제정은 명예회복과 현장 복귀를 요구하며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 규모와 18년이라는 사상초유의 피해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금지구역서 한치 잡다 적발

조업이 금지된 항계(배 정박과 입·출항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항구 내 해상)에서 한치를 잡은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선적 어선 A(5.55t급)호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신방파제 동쪽 200m 해상(항계)에서 낚시대를 이용해 한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이 드나드는 항로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나무 그늘속 어르신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30일 제주시 애항운동장 공원 나무 아래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 도내 교육단체 제주도교육청 역점추진 사업 설문조사 결과

학생 절반이상 “IB 교육프로그램’이 뭐예요?”

학부모 27%·교원 11% “IB 정책 모른다” 응답 학생 10명중 4명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 몰라”

제주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B 교육프로그램 시범 도입'이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로부터 평가절하 당했다.

전국교육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제주 지역주민 교육 요구 조사 연구-교육청 정책 평가'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중·고등학생 473명, 교원 393명, 학부모 3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IB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응답자 상당수가 '정책 모름'이라고 대답했다. 학생은 52.8%, 학부모 27.2%, 교원 10.8% 순이었다.

이어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는 학생 39.8%가 정책 모름이라고 답했고, 학부모는 20.1%, 교원

16.9%였다.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학생 3.5(70점), 교원 3.35(67점), 학부모 3.17(63.4점)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평가 분야는 학생의 경우 '기초학력 지원으로 학습복지 실현'이 3.68(73.6점), 교원의 경우 '과정중심평가 정착(평가 혁신)'이 3.61(72.2점), 학부모는 '다문화교육학교 활성화'가 3.27(65.4점)로 조사됐다. 가장 낮게 나타난 분야는 'IB 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이 학생 3.27(65.4점), 교원 2.75(55점), 학

부모 2.91(58.2점)로 모든 집단에서 낮게 평가 됐다.

교육복지 및 소외계층 지원 영역 9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는 학생 4.18(83.2점), 교원 4.0(80점), 도민 3.82(76.4점)로 나타났다. 가장 평가가 높은 분야는 학생의 경우 공립 대안 교육체제 구축 4.55(91점), 교원의 고교무상급식 전면실시 4.41(88.2점), 학부모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4.25(85점)로 확인됐다. 가장 낮게 나타난 분야는 학생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71(74.2점), 교원 3.39(67.8점)와 학부모 3.36(67.2점)의 경우 공립 대안 교육체제 구축이 낮게 평가됐다.

한편 이들 단체는 '제주 교육 쟁점 및 대안'에 대한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한국공항공사는 채용공항 지속 근무 약속 이행하라”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주)의 노동자들의 근무 지역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동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공항지회는 30일 제주공항 3번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공항서비스가 자회사 전환 당시 약속했던 '채용 공항 지속 근무' 약속을 저버리고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타지역 공항 순환 근무라는 독소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취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있지만,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은 커녕 일부는 임금이 삭감되기도 했다”며 “타 지역 공항 근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엔 협박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파견, 민간위탁 급지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전국 공항으로 발령내는 근로계약서를 철회하고 채용 공항 지속 근무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다혜기자

해경, 부상 조업선원 이송

원거리 조업 중 손가락을 다친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해경의 도움으로 긴급 이송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0일 낮 12시쯤 서귀포 남서방 32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연승어선 A호(29t·서귀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B

(33·인도네시아)씨를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어선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 5000t급 경비함정을 급파해 B씨를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웠다. 이후 응급의료시스템을 가동, 제주시 소재 병원과 연결해 절단 부위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이송 작전을 펼쳤다.

김도영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비료 100% 수용성 비료
15-3-5+ 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펄빅산, PAA, PGA, 바실러스, 왁스바실러스, 효소당밀, 발근제

용량 : 20kg

NAVER D 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농업인이자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하우스 농가 *일조가모자랄때:광합성 작용을 위해 하우스 천정으로 살포 =해피한그린 1병(50말)을 일주일 간격 2회→당 상성과 연관이 있으므로 꼭 살포할것

키위농가 *건물중을 높이기 위해 하이휴믹(천연가리)관주:1000평에 500g을 100말에 희석하여 한달간격 2회

양배추·양파·브로콜리 농가 *육묘 키울때: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V패스(500ml) 12.5말로 2~3회 살포
*정식할때: V패스를 조루로 충분히 관주후 파종

마늘농가 *마늘종자소독: 파종 하루전 키토산(2L)25말로 희석하여 침지하거나 조루로 충분히 묻혀 관주후 다음날 파종 = 종자를 막형성시켜 세균이 침범하지 않으며 뿌리가 나오면 미생물 먹이가 되어 발아가 균일하게됨

감자농가 *더닝이병과시들은병예방을 위해 토양소독: V패스(2L)+썰파고(8L)를 50말에 희석 500평 관주후 경운

제품소개

- 해피한그린 : 희토류가 들어있어 엽록소 함량 증가로 광합성 능력을 회복
- 하이 휴믹 : 부식산에서 추출한 고농축 천연가리
- V 패스 :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 썰 파 고 :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고펙이감굴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